

## 광주매일신문



제8981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2025년 8월 4일 월요일(음력윤6월 11일)

## '분산에너지·RE100' 전남 산업생태계 대전환 이끈다

정부,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조성 추진 분산특구 지정·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규제제로' RE100산단도 서남권 유치 탄력 첨단기업 이전·에너지 신도시 가속화기대

이재명 정부가 전남을 광역 단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 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전남 도의 '에너지산업 수도' 도약에 청신호가 켜졌 다. 특히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란? 지역에서 발생한에너지수 요를 해당 지역에서 자체 생산·공급하는 지역 단위에너지 시스템. 중앙 집중형 공급 시스템 의에너지 손실, 송전설비비용, 지역별수급 불 균형 등문제 해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 %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의미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국제 사회캠페인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유치까지 현실화 될 경우, 전력 다소비 첨단기업들의 전남 이전과 전남도 핵심사업인 에너지 신도시 건설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재생 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데다 전력망 구축이 시급한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의 혁신기지로 만들어가겠다"며 양방향 계통의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 대상지로 전남을 지목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천억원 가량을 반영한다는 구체적 추진 방향도 내놨다.

정부는 전남 지역을 광역 단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내 전력 직접 거래, 에너지 생산·저장·소비·거래 분야 신사업에 대한규제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여수석유화학단지, 광양국가산업단지 등을 인공지능(AI) 기반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전력을 자체 생산·저장·소비하는 소규모 지능형전력망) 산단으로 조성하고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비 등 유연성 자원을 집중시킨다는 구상이다.

+

전남지역 대학 캠퍼스와 스마트팜, 공항, 군부대 등에도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다양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실증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를 에너지신산업 창업 인큐베이팅의 산실로 조성, 에너지 스타트업, 에너지 기업, 대학이 협업하는 'K-GRID인재·창업 밸리'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재생에너지 메카' 전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힘에 따라 앞서 지난 5 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자체 대상 공모에서 분 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로 지정된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대 4천400만평 또한 최종 지정 절차 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둔 만큼 이르면 이달 중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에 차세대 전력망이 가장 먼저 도입되는 만큼 정부가 연내 선정할 'RE100 국가산업단지' 의 전남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 단조성, 기업 유치 등장기 과제인 RE100 산단과 달리 마이크로그리드는 ESS 설치, 운영시스템 구축 등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10일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며 후보지로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서남권과 울산을 언급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 특강에서 '전남·광주에 대해 다양한 RE100지원 정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100 산단은 입주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산업단지다.

서남권 RE100 산단 지정이 현실화할 경우 전 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사업, 에너지 신도시 조성 등 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면에 계속

/양시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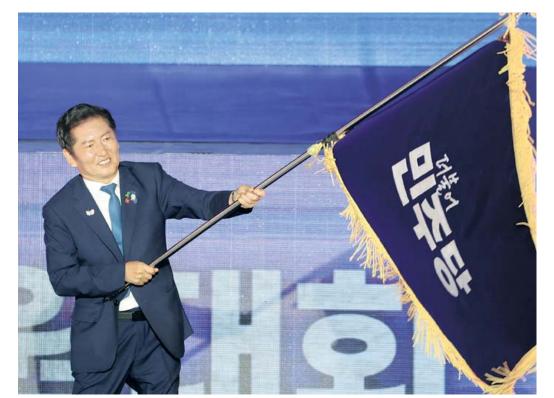
6면



전남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급증



김도영 복귀···"KIA 반등 기폭제되겠다" 16면



당기 흔드는 신임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지난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에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로부터 받은 당기를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 정청래, 민주당 새 대표 당선

61.74% 득표압승···李정부첫與대표등극 "추석前검찰·언론·사법개혁마무리할것"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에 대한 공천 권을 행사하게 될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4 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지난 2일 선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가 된 정 신임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개혁 속도전'을 예고해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나온다. ▶관련기사 2·4면

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 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에서 61.74%의 득표율로 경쟁자였던 박찬대 후 보(38.26%)에 압승했다.

대의원(15%), 권리당원(55%), 일반국민 여론 조사(30%)가 합산된 이번 경선에서 정 대표는 권리당원(66.48%)은 물론 일반 여론조사(60.46 %)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정 대표의 압승은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를 종식하고, 집권 초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지층의 요구가 반영된 결 과로 풀이된다.

정 대표와 박 후보 모두 친이재명계로 동일하 게 개혁을 강조했으나 지지층은 더 강성이면서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정 대표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정 대표는 무엇보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게 됐다.

지역 초미의 관심사인 차기 광주시장·전남지 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 공천권을 쥐었다는 뜻이다.

만약 그가 지난 2022년 서울·부산·인천·충청· 강원 등에서의 지방선거 패배를 설욕하고 지방 권력 탈환에 성공한다면 연임에 도전해 차기 총 선까지 당을 이끌 가능성도 여권 일각에서 거론 된다. 다만 강성 지지층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민 의힘 등 야당과의 관계에서 강경 일변도로만 흐 를 경우 수도권 등에서의 중도층 이탈 현상이 현 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언론·사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 첫째도 승리, 둘째도 승리, 셋째도 승리 에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맞추겠다"며 "승리를 위한 열쇠는 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일이며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고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관련해선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선 "민주 당 당원과 당 대표는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 통령과 운명 공동체"라며 "이재명 정부가 성공 해야 민주당도 성공하며, 민주당이 성공해야 이 재명 정부도 성공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정·대가 원팀으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겠 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험한 일, 궂은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 다. /김진수기자

광주매일신문수습기자 최종 합격자 ▲서형우 ▲윤찬웅 ▲이연상

